

코로나19에 대한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식

Badminton sports instructor perception of COVID-19

김동문(원광대학교 교수) · 방은혜*(고려대학교 시간강사)

Dong Moon Kim WonKwang Univ · Eun Hye Bang* Korea Univ.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Google 온라인 질문지를 활용해 개방형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납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 첫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직업, 여윌시간의 긍정적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적 감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활동 제한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대처방안은 직업변화, 방역지침, 직업 사수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의 개념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adminton sports instructor perceptions of COVID-19.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among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face-to-face collection due to COVID-19, an open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Online Questionnaire.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through expert meetings, and some questions were modified and used in this surve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urvey.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ductivel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inductive data analysis, first, the positive effects of COVID-19 on leaders were found to be job, leisure time, and positive keywords. Second, the negative impact of COVID-19 on leaders was found to be keywords of negative emotions, economic difficulties, and social activity restrictions. Third, future counter-measures were found to be keywords for job change, quarantine guidelines, and job security. Finally, based on this study, a follow-up study will require a study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sports leaders after the end of COVID-19 as a concept of longitudinal study.

Key words : Badminton sports instructor, COVID-19, perception

1. 서론

세계적인 전염병은 현재뿐만 아니라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까지 존재해왔다. 2003년 사스(SARS-CoV), 2009년 인플루엔자(Pandemic H1N1/09 virus), 2015년 메르스(MERS)까지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거 전염병 사태 때에는 코로나19 만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가 유행할 때, 메르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병하지 않거나 발병하더라도 그 숫자가 극히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하였고, 그 당시에 메르스 감염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단순한 숫자만 본다면 감염자 수는 낮지만 세계적으

* soul86400@korea.ac.kr

로 비교한다면 감염자 수가 세계 2위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메르스는 특정국가에서만 발병한데 그쳤지만 코로나19는 최초 발병 이후 전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이 되었기에 메르스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염병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여 국가 봉쇄령, 통행금지령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인하여 팬데믹이 해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는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범 유행 전염병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해 2월 28일 코로나19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으며, 3월 11일 범 유행 전염병(Pandemic)임을 선언하였다.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져서 전파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6일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주도하에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확진자 수는 하루 1~2명 정도였고 확진자의 이동정보 공개도 바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월 18일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 관리 지침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나누어 확진자의 수에 따라 활동의 제한을 하였으며, 집단 감염의 확률이 높은 유흥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추가로 운영 중단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2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멈추었다(Blocken, B. et al., 2020).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직장인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도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게 되었다. 스포츠도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게 되었다. 프로스포츠는 리그 중단 또는 리그 개최 연기를 시행하였고, 전국 체전을 비롯한 국내의 스포츠 이벤트가 취소되었으며 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1년 미뤄져 개최되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조정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의 유무도 결정되었다(박재명, 김두한, 신미애, 2021). 적당한 활동은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건강한 느낌과 삶의 원동력을 주기도 하는데, 코로나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신체적 무기력증이나 심리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나타난다(노주선, 2020). 이로 인한 정서적, 감정적 현상이 바로 ‘우울(Blue)’인데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라 하여 ‘코로나 우울(Blue)’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국립국어원, 2020).

고광욱(2020)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신체 활동수칙을 제시하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스크 쓰기과 손 씻기, 타인과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인 외부 활동 제약은 심리적 거리 확대와 외로움, 우울과 불안, 공황장애, 신체활동과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건강과 신체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광욱, 2020).

한편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나 체력단련의 차원을 넘어 신체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영역으로써 놀이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생활체육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급성장, 생활수준 향상 등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며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김현식, 김종욱, 2012). 오늘날 체육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의 증가는 생활체육의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와 여가활동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체계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이혁, 이재홍, 2009).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여러 업종의 개/폐쇄의 여부가 달라졌는데, 2020년 11월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되어 더욱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국민생활체육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 60.1%로 2019년 66.6% 대비 6.5% 포인트 감소하였고, 2021년 60.8%로 0.7% 상승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참여율이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들어서 한시적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김주희, 2020).

한편 대한 체육회는 2019년부터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 등록을 실시하였다. <표 1> 2020년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한 종목은 총 64개이며 총 305,096명이 등록되었고 그중 배드민턴 동호인 선수 등록 순위는 파크골프(총 52,770명, 남 23,331명, 여 29,439명) 다음으로 2위(남 32,708명, 여 15,733명)의 선수 등록을 기록하였다(대한체육회, 2021). 이처럼 배드민턴은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생활체육 중 한 종목임을 알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며 상위 순위에 있는 종목 중 유일한 실내체육 활동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2021)가 주관하여 조사한 2021년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상위 10개 종목 내에 배드민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 배드민턴 참여율이 단순히 선수 등록 숫자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 2020년 생활체육동호인 선수등록현황

순위	종목	총(명)	남(명)	여(명)
1	파크골프	52,770명	23,331명	29,439명
2	배드민턴	48,441명	32,708명	15,733명
3	축구	41,412명	33,926명	7,486명
4	게이트볼	20,608명	20,608명	12,361명
5	철인3종	31,039명	27,422명	3,617명
.
.
.
.	64개종목	305,096명	195,294명	109,802명

배드민턴 참여자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에 들어서 배드민턴은 미디어에서도 주목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서울방송(SBS)에서 라켓 소년단이라는 드라마를 16부작으로 제작하여 2021년 5월 첫 방송을 하였다.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배드민턴을 전면으로 내세운 참신한 소재로 호평과 흥행을 하였으며 본 방송 시청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1위를 하기도 하였다. 예능에서도 배드민턴을 소재로 방송을 만들기도 했다. TVn에서는 12부작 예능 라켓 보이즈를 2021년 10월 첫 방송 하였으며 준수한 시청률과 화제성을 겸비하여 방송을 마쳤다(Flixpatrol, 2021). 더불어 2022년 상반기 배드민턴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KBS 드라마-너에게 가는 속도 493km)가 방영 예정이며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김우경, 2017). 배드민턴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도 받아서 즐기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배드민턴 참여자들은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더불어 나아가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고 지도를 받으며 실력 향상에 힘을 쏟는다(전순명, 이지향, 오성민, 2019). 문화체육관광부(2020)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체육활동 지도를 받은 지도자 유형이 전문지도사 86.9%, 비 전문지도사 13.1%로 전문적인 지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학교 체육 외 생활체육 강좌 및 강습을 받아 본 종목에 대해 보디빌딩(23.9%)을 순으로 수영(22.6%), 요가/필라테스/태보(19.1%), 골프(12.0%)에 이어 배드민턴(3.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 가입 종목으로는 2021년 기준 골프(21.8), 축구(16.5%) 다음으로 배드민턴(8.4%)로 응답되기도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a, 2021).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있으니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생활체육 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유아에서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동 기술 지도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정덕조, 김기홍, 옥정석, 2009).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시도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b, 2021). 그러나 이는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숫자일 뿐, 더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지도할 것이다. 2021년 발표된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c, 2021)에 따르면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자는 17,277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겨 하는 배드민턴이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2020년 1월부터 체육관 시설 이용이 제한됐고, 2월에는 각종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전국 모든 체육관 시설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였다(김용필, 2020). 체육관이 문을 닫기 시작하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직군은 최전방에서 지도를 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이었다. 특히,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 형태를 맺고 지도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염병 대 유행 상황에서 지금처럼 팬데믹 선언 이후 오랫동안 종식되지 않았었던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전염병 대유행 상황 시 생활체육에 미친 영향, 애로사항, 대처방안 등에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를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85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의 자료 5부를 제외한 80개의 설문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명/%)	나이 (세/±)	지도경력 (년/±)	지도 클럽수(개)
	남 (38/47.5)	29.8 (±5.15)	5.9 (±3.8)	2.7
	여 (42/52.5)			

1차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후 각 범주화된 요인들을 뒷받침할 심층면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심층면담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 대상은 1차 설문에 참여했던 지도자 중 지도 경력이 일정 충족된 지도자 5명을 선정하였다. 각 지도자들에게 면담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심층면담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4명의 지도자들이 최종 심층면담 대상자가 되었다. 면담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각 1회씩 진행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2.3세이며 평균 지도 경력은 8.6년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지 제작 과정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을 갖

추고 실제 지도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3인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토 후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고, 질문의 구체화를 위하여 사전에 N시, H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6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받은 답변을 토대로 개방형 설문문을 완성하였으며 최종질문은 <표 3>에 표기하였다.

표 3. 개방형 설문 내용

번호	내용
1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2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3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후 일상으로 돌아간 뒤, 향후 이런 사태(전염병)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외에 성별, 연령, 지도경력 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 제작, 자료수집,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Google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지 제작 후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뒤, 각 문항에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기술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같은 문항에 중복된 답안을 적어도 무관하도록 안내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과정을 거쳐 귀납적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범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무관하거나 질문 문항에서 벗어난 답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범주화 결과에 대해서는 스포츠심리학 교수와 박사, 박사과정생에게 검토를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을 받은 답변들을 자료 분석하는 데에 있어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ategorization)을 사용하였다. 귀납적 의미가 유사한 원자료는 하나로 묶어 세부 영역으로, 세부 영역은 다시 일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귀납적 범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3인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내용을 범주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되도록 원자료의 내용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범주화된 원자료를 토대로 의미가 비슷한 자료들을 세부 영역으로 묶었으며, 이 세부 영역을 일반영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와 해석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동의한 내용을 근거로 범주화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된 답변은 전체 응답자 80명 중 52(65%)명, 없음으로 응답한 답변자 28(35%)명이었으며 이중 범주화된 원자료는 97개다. 일반영역은 직업, 여유시간 증가, 긍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영역은 다른 직업 경험, 다른 직업 전환의지 등 11개로 범주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다.

직업

직업은 총 38개의 원자료를 토대로 다른 직업 경험(14), 다른 직업 전환의지(11), 일상전환(8), 자기개발(5)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다른 직업 경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관 폐쇄에 따라서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니 차선택으로 다른 일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체육시설 문 닫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B)

여태껏 생활체육지도자만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제 의지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니지만 좋게 생각 하려고요. (A)

다른 직업 전환의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을 계기로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많은 직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이명진, 2021). 한편 일상 전환 영역에는 다른 것을 배워보고 시작할 수 있다는 답변과 새로운 사람,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자기개발도 같은 맥락의 답변이다.

여유시간 증가

여유시간 증가는 총 34개의 원자료를 토대로 가족과의 시간(12), 휴식(10), 여유로움(8), 육아(5)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가족과의 시간은 그동안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는데 야외활동 및 경제활동의 제한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다. 이는 같은 영역 내 육아와도 연관이 있는 결과이기도 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육아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부분 지지하는 결과이다(주국희, 2020). 또한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 결과(김현예, 2021)에 의하면 일상생활이 불안할수록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9.6%로 조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

원자료(n)	세부영역(n%)	일반영역(n%)
생활체육지도자 외 다른 일 경험(6), 유튜브 시작함(4), 방과 후 강사(3), 카페창업(1)	다른 직업 경험(14/14.4)	직업(38/39.2)
배드민턴 시설구장 운영(5), 다른 경제활동 구상(4), 생활체육지도자 외의 다른 직업군을 알게됨(2)	다른 직업 전환의지 (11/11.3)	
다른 것 배워보고 시작해볼 수 있는 계기(4), 새로운 사람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하게됨(2), 삶이 전반적으로 달라짐(1), 생활력 강해짐(1)	일상전환(8/8.2)	
자기개발(3), 도전하는 시간(2)	자기개발(5/5.2)	
가족들과의 시간(10), 자녀와 친해짐(2),	가족과의 시간 (12/12.4)	여유시간증가 (34/35.1)
휴식시간 증가(7), 개인시간 늘어남(3)	휴식(10/10.3)	
시간적 여유가 생김(6), 저녁시간 생김(2),	여유로움(8/8.2)	
육아참여(3),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음(2)	육아(5/5.2)	
직업에 대한 소중함(7),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6), 코로나 이전 삶에 감사함(4)	소중함(17/17.5)	긍정적감정 (25/25.7)
마스크로 인하여 감기 안걸림(4)	건강(4/4.1)	
못 쉬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함(1),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1), 쉬었다 가자 라는 긍정적인 생각(1)	생각전환(3/3.1)	

일하면서 집에서 가족들 보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밖에 못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가족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게 됐어요. (C)

긍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은 총 25개의 원자료를 토대로 소중함(17), 건강(4), 생각 전환(3)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소중함은 직업, 일상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코로나19 이전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 답변을 얻었다.

코로나19 이전에 삶이 그림자고나 할까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으니깐 그게 새삼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물론 지금 많이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B)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서 우울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강선경, 최윤, 2021). 서울교육청에 소속된 한 상담교사는 “코로나19에 빼앗긴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빼앗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부분이다. 한편 마스크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답변은 건강으로, 긍정적 생각,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등은 생각 전환으로 분류하였다.

2.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답변은 전원 응답(90/100%) 하였으며 이중 응답된 원자료는 173개다. 일반영역은 부정적 감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영역은 우울감, 스트레스 등 13개로 범

주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다.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총 81개의 원자료를 토대로 우울감(20), 스트레스(18), 걱정(15), 자기 한탄(14), 직업 회의감(9), 불만(5) 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우울감은 우울, 불만, 코로나 블루, 자존감, 자신감 저하 무기력함 등으로 응답되었다.

내가 하던 일을 못한다는 게..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요. 자신감도 줄어들고(A).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무기력함 같은 정서적 장애는 ‘우울’ 이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가 의료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전보다 많이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와 부분 일치한다(한정수, 최주희, 이상옥, 김유리, 김성수, 2021). 스트레스, 걱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예민해지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박해지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이런 내가 너무도 싫어지기도 해요(B).

코로나19 현상은 연구 참여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니 자기 한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응답된 부정적 감정 중 스트레스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메르스의 1.5배,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에 일치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이은환, 2020).

표 5. 코로나19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원자료(n)	세부영역(n/%)	일반영역(n/%)
일 하지 못해서 우울함(5), 불안감(4), 코로나 블루현상(4), 자존감, 자신감저하(3),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인한 무기력함(2), 우울증(2)	우울감(20/11.6)	부정적 감정 (81/46.8)
스트레스(8), 답답하고 무기력(5), 현실 막막(3), 긍정적 사고 어려움(2)	스트레스(18/10.4)	
불확실한 미래 걱정(8), 막막함(4), 부정적감정 증가(3)	걱정(15/8.7)	
내 존재가치에 대한 혼란스러움(4),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느껴짐(4), 내 20대가 불쌍함(2), 일할때 보다 더한 피로감, 불안감(2), 남들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괴로움(2)	자기하탄(14/8.1)	
생활체육지도자 직업 환경의 열악함 체감(4), 직업에 대한 회의감(3), 관계없는 직종 일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2),	직업회의감(9/5.2)	
코로나19 제한 시설기준이 형평성이 없음(3), 정부지원없음(2)	불만(5/2.8)	경제적 어려움 (67/38.7)
수입이 줄어 힘들(10), 경제적인 어려움(7), 금전적 어려움(4), 인생에서 제일 돈 못 벌고 있음(2)	수입감소(23/13.3)	
수입원 없음(7), 생활고(6), 체육관 문 닫아서 수입 없음(4),	수입 없음(17/9.8)	
실직(6), 레슨 못하게 됨(3),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2)	구직활동 제한(11/6.4)	
일을 못해서 힘들(4), 일을 못해서 답답함(2), 일하는 것 자유롭지 않음(2), 일 할 수 있는 공간 제약(1),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음(1)	직업활동 제한(10/5.7)	
일상생활 위태로움(3), 힘든 하루하루 버티는 중(3)	일상 어려움(6/3.5)	사회적 활동 제한 (25/14.5)
대인관계 단절(6), 부정적 판단하고 사람 멀리하게 됨(2), 대인관계 힘들(2)	인간관계(10/5.8)	
자유롭지 못함(5),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제한적임(2), 자유롭게 놀지 못 함(2)	자유 억압(9/5.2)	
체지방 증가(4), 운동하지 못해 몸이 찌뿌둥함(2)	건강(6/3.5)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은 총 67개의 원자료를 토대로 수입 감소(23), 수입 없음(17), 구직활동 제한(11), 직업 활동 제한(10), 일상 어려움(6)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소중함(17), 건강(4), 생각 전환(3)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수입 감소는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 경제적, 금전적 어려움 등으로 응답되었다.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하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고정지출도 있고 그런데 막막해요. 주변 아는 지인들은 생활 대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대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남 일 같지 않아요. (C).

수입 없음은 수입원 없음, 생활고 등으로 응답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관 잠정 폐쇄로 레슨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겼어요(D).

구직활동 제한은 실직, 레슨 못함,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으로 응답되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거요. 언제까지 쉬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그렇고.. (C)

직업 활동 제한은 일을 못해서 힘들, 답답함, 일하는데 자유롭지 않음 등으로 응답되었다.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요. 그래도 비슷한 직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쿠팡이나 배민(배달의민족) 배달하는 거 밖에 없을걸요?(B)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인 5명 중 3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응답하였다(김성민, 2020). 이는 체육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현장성이 강한 체육계에서는 특히 더 타격을 입었다. 같은 계열의 직군인 태권도 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성언, 김나혜, 2021)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수련자들의 미등록으로 인해 생계에 대한 걱정, 직업의 방향성이나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를 지지해 주는 연구결과이다.

사회적 활동 제한

사회적 활동 제한은 총 25개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인간관계(10), 자유 억압(9), 건강(6)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간관계는 대인관계 단절, 사람 멀리하게 됨, 대인관계 힘들로 응답되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주기적으로 하는 모임도 못 나가고 사람을 못 만나니 정보도 얻기 힘들고.. 아무리 비대면으로 만난다 해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만 못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외향적인 사람은 더 힘들 거 같아요. (A)

표 6. 향후 대처방안

원자료(n)	세부영역(n/%)	일반영역(n/%)
다른 직업 준비 필요(13), 안정적직업 재취업(8), 체육지도자 병행하며 자격증취득(6), 정규직 직장(5), 엘리트지도자(4), 확실한 수입원 필요(4)	다른 직업 준비(40/44.4)	
시설체육관 운영고려(6), 기존 레슨방식이 아닌 새로운 레슨형태(4)	새로운 레슨 방식 (10/11.1)	직업변화(59/65.5)
생활체육지도자 하면서 다른 직업(5), 알바 병행(4)	투잡(9/10)	
생활방역 유지하며 영업제한 해제 됐으면...(4), 백신개발(2), 단시간 거리두기로 사태진정(1), 전염병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음(1), 정부의 빠른 대처(1),	예방책 강구 (9/10)	
방역지침준수(9), 강력한 방역방침(5), 개인 방역 철저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3),	방역지침 준수(8/8.9)	방역지침(21/23.3)
정부지원사업 구축 필요(2), 체육계 종사자 처우개선(2)	정부지원 (4/4.4)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처우 개선 위해 노력해야 할 것(5)	권리찾기 (5/5.6)	직업 사수(5)
잘 모르겠다(5)		모르겠음(5/5.6)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코로나 블루와 관계가 있다(유인선, 2022).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모임이 줄거나 비대면 방식 전환으로 대인관계의 변화를 1위로 답했다고 발표했다(정유미, 2021). 이는 감염 우려로 인한 외부 활동 단절과 연관이 있고, 각종 방역 규제로 인하여 아예 대인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도 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유 억압, 건강 등에도 응답을 하여 사회적 활동 제한 영역에 분류하였다.

3. 향후 대처방안

코로나19가 베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된 답변 75(93.5%)개, 무응답 답변 5(6.3%)개였으며 이중 응답된 원자료는 90개다. 일반영역은 직업변화, 방역지침, 직업사수, 모르겠음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영역은 다른 직업 준비, 새로운 레슨 방식 등 8개로 범주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다.

직업변화

직업변화는 총 59개의 원자료로 다른 직업 준비(40), 새로운 레슨 방식(10), 투잡(9)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직업 준비는 다른 직업 준비 필요, 안정적 직업 재취업,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시작되고 기존에 레슨 하던 체육관이 다 문을 닫았어요, 뉴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온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지느니 그전에 다른 직업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D)

체육지도자 특성상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즉 계약직 형태의 고용관계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신

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였다(이태훈, 2021).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일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보인다.

새로운 레슨 방식에는 시설체육관 운영 고려, 새로운 레슨 형태로 분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베드민턴 시설체육관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보통 공공시설이나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하던 형태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문을 닫다 보니 직접 체육관을 개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기존의 체육관이 열린다면 시설체육관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에 선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투잡 세부 영역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면서 다른 직업,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응답하였다.

방역지침

방역지침은 총 21개의 원자료로 예방책 강구(9), 방역지침 준수(8), 정부 지원(4)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예방책 강구는 영업제한 해제, 백신 개발 등으로 응답되었다. 베드민턴 구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는 부담이 큰 영업장이다. 코트 면적, 높이 등을 고려하여 체육관을 대여 혹은 건축하게 된다면 1코트 기준 최소 30평, 최소 높이 8m(3층 건물 높이)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른 체육시설보다도 임대료 및 운영비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공공시설에 강습을 개설한 곳에서 레슨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2주 간격으로 집합 금지명령/해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침 준수는 방역지침 준수, 강력한 방역 방침 등으로 분류하였다. 코로나19 초기, 우리나라는 K-방역을 내세워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방역체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었고,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원인중 하

나의 이유이기도 하다(양준용, 손애리, 조병희, 2021). 그렇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다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 사업 구축 필요, 체육계 종사자 처우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면서 실직의 장기화, 근무형태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 활용 등 추세적 변화를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조영화, 2020). 그러나 직접적으로 구매자(강습자)와 대면을 해야 하는 체육지도자 특성상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직업 사수

직업 사수는 권리 찾기(5) 한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별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한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바 있다. 매년 바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체육계 관계자들이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윤예원, 2021).

종합적으로, 첫 번째 결과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직업, 여유시간, 긍정적 키워드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 다수가 다른 분야의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광호, 정동화, 2021).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직업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체육지도자 이외의 직업을 생각해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여유시간 증가는 그동안 일을 하느냐고 바쁜 와중에 뜻하지 않았지만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긍정적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감정 역시 어렵고 힘든 와중에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해쳐 나가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결과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적 감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활동 제한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감정 중 하나이다(문정화, 김수진, 성기욱, 2021). 그러나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 외에도 직업에 관련한 부정적인 감정이 도출되었고, 직업적 관련한 부정적 감정 역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바이다(최봉, 오승훈, 2020). 사회적 활동 제한도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현상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를 부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유인선, 2022).

세 번째 결과인 향후 대처방안은 직업변화, 방역지침, 직업 사수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성유경, 2020).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환경,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체육지도자들은 직업 특성상 비대면 근무나

재택근무는 불가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족하는데 비대면 스포츠를 할 수 있을지, 비대면 스포츠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박광호, 정동화, 2021).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을 느껴 대처방안으로 직업변화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이러한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다면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여 빠르게 종식을 원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큰 피해를 겪었지만 국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박광호, 정동화, 2021). 이번을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대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도 향후 대처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마냥 전염병이 종식되기만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장기화되어 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종식된다 하더라도 쉽게 봄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기 위해 부른 꿈을 안고 시작한 사람, 선수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시작한 사람, 직접 배우다가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지도까지 하게 된 사람 등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이들은 생활체육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염병 사태가 온다면 생활체육계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잠깐의 이탈은 생계를 위협한다지만 장기적인 이탈은 체육계,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미시적인 시선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 상황에서도 굳건히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지닌 가치라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2019년 1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 대유행 전염병에 관련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직업에 관련한 연구는 있지만 코로나19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자료 97개, 세부 영역 11개, 일반영역 3개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코로나19가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답변으로는 173개의 원자료와 14개의 세부 영역, 3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셋째, 향후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90개의 원자료와 8개의 세부 영역, 4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향후 후속연구 구에서는 중단연구의 개념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향후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 연구를 참고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선경, 최윤(2021).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고광옥.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7(1), 109-112.
- 국립국어원, 2020.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7. 31~8. 2.) 대체어 마련. **국립국어원**.
- 김성민(2020년 09월 14일). 직장인 62.7%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느껴" ... 알바생, 취준생은? **M이코노미뉴스**.
- 김용필(2020년 02월 28일). "코로나 19로 각종 대회 연기, 올림픽 레이스도 비상" **.배드민턴뉴스**.
- 김주희(2020년 12월 30일). "코로나19 여파, 생활체육 참여율 3년 만에 감소" **. 뉴시스**.
- 김우경(2017).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6), 153-163.
- 김현식, 김종옥 (2012). 생활체육과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스포츠사이언스**, 30(1), 43.
- 김현예(2021년 07월30일). 코로나로 불안해진 일상...커지는 가족의 소중함. **중앙일보**.
- 노주선(2020). 코로나 블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재정**, 2020 (4), 124-127.
- 대한체육회(2021). **2020년 동호인선수 등록현황**.
- 문정화, 김수진, 성기옥(2021).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85-307.
-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체육백서**.
- 박광호, 정동화(2021).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지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 19 (3), 58. pp. 1-20.
- 박성언, 김나혜(2021).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에 따른 태권도 도장 지도자들의 일상과 걱정. **한국체육학회지**, 60 (1), 49
- 박재명, 김두한, 신미애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체육 달리 기운동의 활성화 방안. **스포츠사이언스**, 39(3), 331-336.
- 성유경. (2020).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자리 변화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이슈포커스**, 2020, 1-30.
- 양준용, 손애리, 조병희(2021). K-방역 자부심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58(1), 25-52.
- 유인선(2022년 02월24일). 혹시 나도 '코로나블루'? 자가진단 꼭 해 보세요 **경향신문**.
- 윤예원(2021년 12월 20일). 헬스장 관장님도 광화문 집회 나선다... 9시 영업제한에 폭발한 실내체육업계. **조선일보**.
- 이명진 (2021). **코로나19(COVID-19)시대의 직업불안정성과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은환 (2020).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2020.5, 1-25. **경기: 경기연구원**.
- 이태훈(2021년 01월11일). 文 "코로나 위기사속 韓 오히려 빛났다...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 동아일보**.
- 이혁, 이재홍(2009). **생활체육론**. 대경북스. 서울.
- 전순명, 이지향, 오성민(2019). 생활체육 배드민턴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동호인의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수행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5), 265-280.
- 정덕조, 김기홍, 옥정석(2009). 체육지도자의 새로운 지도 목표. **운동학 학술지**, 11(3), 107-116.
- 정유미(2021년 01월 07일).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1~2년 걸릴 듯" **. 경향신문**.
- 조영화(2020년 07월 20일). 코로나19와 노동시장. **경기일보**.
- 조유라(2021년 07월 14일). 얼굴 잔뜩 찡그렸다가 풀어보세요... '코로나 블루' 극복 이렇게. **동아일보**.
- 주국희(2020). 코로나19에서 겪는 가족갈등, 가족 내 성평등, 나아가 소통. **여성우리**, 64, 10-13.
- 질병관리본부(2020).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보건복지부**.
- 최봉, 오승훈(2020).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15, 1-23.
- 한정수, 최주희, 이상옥, 김유리, 김성수(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공감에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위험지각과 간접외상을 통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609-625.
- Blocken, B., van Druenen, T., van Hooff, T., Verstappen, P. A., Mar chal, T., & Marr, L. C. (2020). Can indoor sports centers be allowed to re-op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a certificate of equivalence? *Building and Environment*, 180.
- Flixpatrol(2021). <https://flixpatrol.com/>